준비된 한 사람 (사도행전 17:1-9)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리고 그것이 답이라고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저주에서 나오는 답은 오직 복음 뿐이기 때문에 복음에서 나온 사람은 무조건 저주로 죽었다. 사단의 속임수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속임수가 맞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든 인간의 인생 표본이다. 이스라엘 역사의 큰 주제 흐름은 복음을 회복했을때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 없었다. 기적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언약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항상 저주가 임했다. 아주 어김없이 저주가 임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고 노예로 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말씀의 흐름이다. 답 나야 한다. 답 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 받는다. 간단하다. 기도할 필요도 없다.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약속대로, 말씀대로 되어 버리는 것이다. 언약을 회복하면 문제가 역전되어 기적이 일어난다. 성경에 계속 쓰여 있다.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저주가 임한다. 고통속에서 노예가 된다. 이 원리는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렘넌트 7명, 대표적인 복음의 사람들이었다. 아주 한마디로 기적의 인생 살았다. 문제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가 뒤짚어 져 버린 것이다. 그리고 자기만 산게 아니라 나라를 살렸다. 우상 숭배했던 대부분의 왕들은 자기 뿐 아니라 온 나라가 저주 가운데 들어갔다. 이상하게 저주가 오는 것이다. 잘한다고 하는데, 일이 안된다. 복음을 회복하면 실수를 했는데도 뒤짚어저써 축복이 온다. 못 막는다 아무것도. 이런 인생 살아야 한다. 이게 정복하는 인생이다. 문제 와도 상관 없어. 정복하면 되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인생의 지침이다. 너도 이렇게 살아라. 뭐 이런 저런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너는 복음 인생을 살아라. 우상 인생 살면서 어떻게 복을 받겠냐. 그리스도를 항상 언약으로 잡아라. 그러면 너에게서 저주가 분명히 꺾이는 것이다. 반드시 뱀의 머리 박살난다. 너는 이 복음 인생을 살고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면 니 인생의 길이 나타난다. 기적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 마태복음 6장의 결론이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메시지의 결론이다. 이렇게 안 살고 결심이 안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것이다. 결단해야 한다. 자꾸 어영부영 세월지나면 안된다. 계속 손해보게 된다.

그래서 믿는 자들가운데에서는 응답이나 증거의 차이가 있을수 있는데, 그 차이가 바로 복음의 차이이다. 복음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응답의 차이로 나온다. 누림에 대한 깊이의 차이가 응답의 차이를 낳는다. 복음에 대한 헌신에 대한 마음의 차이가 응답이 차이인 것이다. 혹 색깔과 같은 개인적 영적 차이도 있다. 이것은 치유받아야 할 일이다. 깨끗하게 복음으로 끝내야 한다. 그것 아니고 뭔가 줄줄 달고 있을수 있다. 그거 다 버려야 한다. 그래서 오늘도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복음이다. 이것 안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더 깊이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한다.

1. 준비된 한 사람

준비된 제자 한 명 너무나 중요하다. 현장에서 복음 운동을 해 본 사람은 누구든지 인정하게 된다. 준비된 한 사람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준비된 제자, 사도바울에게 데살로니가에 준비된 제자 야손을 붙였다. 당연히 역사가 일어난다. 3주만에 교회가 만들어졌다. 참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다. 데살로니가 1장 7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라는 것이다. 마게도니아는 이탈리아를 다 포함하는 지역이고 아가야는 고린도 그리이스를 다 포함하는 곳이다. 거기의 믿는 자들의 표본이라는 것이다.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명한 단어이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단어가 바로 이 교회에서 나왔다. 5절에는 보면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하였다. 사도바울이 먼 훗날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보낸 편지 안에서 나온 단어이다. 너희가 너무나 고맙다는 말이다.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리스도, 큰 확신으로. 이런 귀한 교회가 3주만에 시작이 되어 그 이후에 계속 성장 발전되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그 지역에 준비된 제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야손이 중심이 되어 이 교회를 이끌어 갔을 것이다. 사도바울은 거기서 3주 만에 떠났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남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도 교회는 든든히 서 갔다. 마게도니야와 아가야 지역의 본이 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갔다. 사도바울은 없었다. 그런데 거기 준비된 한 명 있었다. 야손. 그 지역 살린 대표적인 준비된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사실, 야손이 만든 교회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도바울은 이 교회를 세운 이후에 다른 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 운동을 하고 있다. 남은 것은 야손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남아 있다. 사역자는 가버리고 야손이 책임져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난감할수도 있었을 것이다. 사도바울을 의지했으니까. 이러면 기도하게 된다. 기도 많이 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 주시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받은 말씀 증거 했을 것이다. 자연적으로 자신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많은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 야손의 복음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영향을 줬을 것이다.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은 야손의 신앙 모양이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말만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거의 아마 잘은 모르지만 야손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야손의 영적 상태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준비된 한 사람, 너무나 중요하다.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믿음의 인내, 야손이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된 것이다. 그래서 준비된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 자기하고 관계 있는 현장의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데 아주 주도적이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복음 가진 요셉이 죽고 난 뒤에 노예되어 버렸다. 아니라고 말할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적군이 못 쳐들어 왔다.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했다. 왜 못 쳐들어 오는가? 하나님이 막았다. 왜 막았는가? 사무엘이 가진 언약에 대한 약속이다. 내 집안에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답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다. 우리는 이 시대에 시대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다. 왜 그런가? 우리의 핵심,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 복음이 시대적인 복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든지 시대적인 일을 할 것이다. 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그 줄에 선다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미국과 남미의 시대적인 일을 할 교회일 것이다. 아직 확실히 드러나지 않아서 내 믿음만 말하지만 증거 올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올해 100팀 100지교회 기도제목 잡고 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 미스바. 위하여 올해 미국과 남미에 미스바 운동을 시작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대를 이어 해야 하기 때문에 렘넌트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다민족 제자 아니면 절대 안되기 때문에 다민족 미스바 운동 일어나야 한다. 이를 두고 이 교회 안에서 가장 급선무는 모든 영어를 하는 제자들의 미스바 운동. 영어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훈련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영어를 하는 모든 사람은 전도훈련 받아야 한다. 미국 복음화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문 열리면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문 진짜 열려버리면 즉시 제자가 태부족이 될 것이다. 교회 훈련 등한히 하면 안된다. 본부 훈련은 근본적으로 중요하고 교회 훈련은 직접적으로 중요하다. 본부 훈련보다도 더 구체적인 것이 교회 안에서의 훈련이다. 본부 훈련은 큰 방향이고 근본이라면 교회 훈련은 무엇을 직접 지금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한다. 3시 30분에 캠프 훈련 하는데, 3개월마다 캠프를 하는 이유는 이것 전달하려는 것이다. 훈련이 뭔가? 훈련은 메시지를 듣는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나를 바꾸게 하는 것이 훈련이다. 보통 훈련은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내가 안 바뀌면 하나님이 안한다. 나를 바꾸는게 훈련이다. 말

씀을 들어야 내가 바뀐다. 전도 훈련을 위한 근본 메시지가 3시 30분에 캠프 때마다 하는 메시지이다. 본부 훈련이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교회 현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한번씩 예를 봤다. 교회가 없이 본부 훈련만 받는 사람이 무엇이 되어진 사람은 한명도 없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교회이다. 본부는 너무 중요하다. 그러나 근본 메시지일 뿐이다. 잡아야 할. 훈련 받아야 한다.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LA 컨퍼런스 했던 교회 목사님이 토요일마다 와서 전도훈련 시켜달라고 했다. 거기서 어떤 목사님 만났다. 이분 교회는 놀웍에 있다. 훈련 받기를 원한다. 레이코 전도사님이 엔세나다에서 어떤 스페니쉬 목사님 만났는데, 알고보니 이분이 파라마운트에 살고 있다. 두 목사님을 이번주에 한번 만나려고 한다. 그래서 질문할게 있다. 당신은 당신 교회 성도들을 전도자로 만들고 싶나? 무슨 방법이 있나? 나는 있는 것 같다. 들어볼 생각이 있는가?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라. 시작하는 것이다. 복음 들으면 자기들 나고는 평생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것이다.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 하는 것이다. 시대적인 복음을 받았다고. 미국 현지 교회는 전도되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 한명도 교회 새로 들어온 사람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전도 운동 일어나는 교회는 없다. 미국에 큰 교회들이 있다. 만명 2만명. 혹 그런 교회중에 부흥되는 교회 있을수 있을 것이다. 조사는 안해봤다. 아마 작은 교회가 계속 깨지고 그 제자들이 큰 교회로 갔을 것이다. 그러나 전도가 되어져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큰 교회, 내가 알기로는 없다. 그러면 교회가 커진다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전도가 없다는 것이다. 이 전도를 심어야 한다. 전도가 일어나게 하려면 절대적인 조건이 있다. 그게 복음이다. 복음도 모르는데 무슨 전도가 일어나는가? 복음도 아닌데, 왜 거기다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을 붙이시는가? 엉뚱한 소리 할건데. 영어를 할줄 아는 모든 제자들은 훈련 받기 바란다.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야손과 같이 이 시대를 두고 준비된 한 사람이 되기 바란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일어나야 할 미스바 운동이 있다. 나 개인의 미스바운동. 그걸 통해 인생의 미스바운동. 미스바 운동이 무슨 뜻인가? 언약을 행하고 있을 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모였을 때, 내 마음이 그리스도 언약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박을 보내서 적군을 죽여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때 이후로는 전쟁 없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고 미래를 정복하는 약속이다. 이게 미스바 운동의 정의이다. 이 운동을 한 사람의 말은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 우리는 전부 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

2. 준비된 한 사람을 만나는 길

복음을 전해야 한다. 바울도 그렇게 찾았다.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 3절에 뜻을 풀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다. 이 때 야손이 그 복음을 듣고 결심을 한 것이다. 이것이다. 여기에 내가 평생을 걸어야 겠구나. 이래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맞아 들였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것이다. 자연적으로 야손의 집에 갔을 것이다. 야손을 잡았다. 그래도 야손은 바울이 어디 있다는 소리 안 했다. 왜 그랬을까? 답 났기 때문에. 여기에 인생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어디 있다고 말하면 가짜다. 이런 제자들이 바울에게는 많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대를 이어서 복음 운동했다.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에 손을 들었다. 우리는 이 복음 운동을 하는 것이다. 개인을 거론해서 죄송하다. 한국의 조용기 목사, 미국의 빌리그레함 목사 유명한 분이다. 두분다 돌아가셨다. 제자들이 이 운동을 이어서 한다는 소리 잘 못 들었다. 왜 그럴까? 중요한 이야기이다. 사도바울은 제자들이 2백년 3백년 대를 이어서 복음 운동 했다. 물론 하나님 역사이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더 이상 말할거 없다. 하나님이 그때는 역사하고 지금은 안하니까 하면 끝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데 써먹으라고 준 단어는 아니다. 분명히 사도바울과 빌리그레함 목사님에게는 전도운동의 차이가 있다. 이 분들은 대중집회를 했다. 나쁜거 아니다.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 치유의 기적도 일어났고 많은 영광을 돌렸다. 바울은 현장에서 이것도 일어났지만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다. 제자였다. 다락방은 류목사님 돌아가셔도 전도 일어난다. 이유는 제자이기 때문에.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조용기 목사님은 치유의 기적이 있었다. 은사이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메시지를 잘하는 은사 있었다. 사도바울은 말 잘 못하는 사람이다.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해. 그런데 그 포인트가 복음이다. 빌리그레함 목사님과 조용기 목사님도 복음이다. 그러나 그것이 포인트는 아니었다. 오직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왜 복음을 해야 하는가? 은사는 주관적이다. 자기가 한 것을 그 사람이 받아야 이어 받을수 있다. 내가 같은 것을 어떤 사람이 받으면 지것은 지것이다. 하나님에게 바로 받았어. 복음은 뭔가?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전달해야 한다. 그 약속대로 역사 일어난다. 객관적이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은 지만 할수 있다. 그래서 대가 끊겨 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왜 그리로 가겠는가? 이 때 일어난 치유기적이 여기도 있는데. 복음 중심, 제자 중심. 사역자는 눈이 열려야 한다. 그리고 준비된 한 사람이 되려면 이 눈이 열려야 한다. 복음 제자. 복음을 누려서 자기 개인 운동의 미스바 운동, 성경적 전도운동, 제자. 사도바울은 이런 사람이었고, 야손은 거기에 붙여진 제자였다. 미국의 문 조금 열리기 시작하면 즉시로 난관에 봉착하는 것이 반드시 오는데, 제자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야손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래서 복음 딱 듣고 회당에서 들은것인데, 구약성경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미국의 많은 교회가 구약 성경을 옛날거라고 안 쓴다고 한다. 사도바울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창세기 같은 것은 사도바울보다 1500년 전에 쓴 것이다. 옛날 정도가 아니다. 천오백년인데. 그것 가지고 오늘의 이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이다. 야손은 거기서 답 나 버린 것이다. 결단 했다. 그래서 절대 입열지 않았다. 죽어도 괜찮아. 이런 제자가 사도바울에게는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런 사람 되어야 한다.

정말로 시대적인 복음을 우리는 받았다. 딱 바로 잡으면 역사 일어난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다른 사도들도 복음운동 했고 순교도 했다. 빌리그레함 뿐 아니라 조용기 목사 뿐 아니라 다른 사도들에게도 이런 제자 운동은 없었다. 근본적인 것은 사도들이라 해도, 사도바울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복음 차이였다. 복음에 대한 이해의 차이. 복음에 대한 이해의 깊이의 차이. 복음에 대한 나의 결심과 이유에 대한 차이. 복음에 대한 가치의 차이, 누림의 차이. 정도의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해 그 이후의 수많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누림과 깨달음과 정복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른 제자의 차이와 사도바울의 차이는 복음의 차이이다. 복음이 다른게 아니고 복음에 대한 발견과 반응의 차이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할 이유가 있다. 복음이 기준이다. 복음은 세상의 모든 것의 기준이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의 기준이다. 무슨 이야기인가? 이 말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복음을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다. 응답의 증거 나온다는 것이다. 이유는 필요 없고, 복음을 선택안하면 선택할때까지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선택이 지속되면 정복이 온다. 반대로 복음 반대쪽을 계속 선택하면 저주중에 죽게 된다. 구원 받아도 광야에서 죽게 된다. 왜 광야에서 죽게 되는 인생을 선택하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응답과 정복의 인생을 살아야지. 그래서 복음은 우리 인생의 기준이다. 복음을 사이에 두고 축복과 저주가 오는 것이다. 축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것인가? 그 기준이 복음이라는 것이다. 이런 복음이 준비되어 있고 이런 눈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준비된 제자를 만나는 길이다.

사도바울같이 준비된 복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이것은 내용이면서 방법이다. 하나님은 내용과 방법이 다르지 않다. 복음 누림, 언약으로 잡아라. 그리고 지속, 고백하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류목사님 메시지도 항상 복음의 근본과 그것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에 전도를 말하고 있다. 항상 그렇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준비된 한 사람이 되어서 미국과 남미의 시대적인 증인들이 다 되기를 바란다. 위하여 내 개인 인생의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 출발이 되기 바란다.